

성인학습자로서 박물관 도슨트의 경험 의미

민수영(부산대학교, 박사과정)*

요약

이 논문은 박물관 전시실에서 해설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도슨트(docent)의 교수자 및 학습자로서의 경험을 살펴보고, 그 경험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탐색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참여자의 경험에 초점을 맞춘 현상학적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고,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현상학적 분석 방법을 통해 자료를 분석 및 해석하였다. 그 결과 드러난 도슨트 활동의 경험의미는 '관람객과의 일체감을 통한 보람의 시간'과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통한 끊임없는 지적추구에서 얻는 만족', '소속감과 자신감,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성장 욕구'였다. 이를 통해 도슨트 경험이 갖는 본질적인 의미를 '끊임없는 학습을 통한 자기성장'으로 도출하였다.

주제어: 성인학습자, 박물관 도슨트, 경험, 현상학적 연구방법

I. 서론

이 논문은 박물관 전시실에서 해설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도슨트(docent)¹⁾의 교수자 및 학습자로서의 경험을 살펴보고, 그 경험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탐색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오늘날 우리가 휴일이면 가족들과 함께 쉽게 찾아가는 곳이 박물관이다. 일반적으로 박물관

* 제 1저자: 민수영(609-735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2동 산30 부산대학교 교육학과, starswim09@hanmail.net)

1) 도슨트(docent)라는 용어는 '가르치다'라는 뜻의 라틴어 'docere' 라는 말에서 유래했으며(이보아, 2003:136), 영·미 등의 외국박물관에서 전시실 해설 자원봉사자를 가리키는 말로 흔히 쓰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박물관전시실교사'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지만 '도슨트'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관은 예술, 문화, 역사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 보존하는 기능을 하는 곳이면서, 또한 전시와 교육활동을 통해 대중들에게 봉사하는 사회문화기관이다. 이러한 박물관은 공·사립 수를 합쳐 그 수가 날로 증가하는 상황에 있고, 따라서 여러 학문분야에서 박물관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다.

박물관에 대한 연구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첫째, 박물관 건축물과 전시공간, 인테리어에 관한 연구를 들 수 있다(강신국, 2003; 김주영, 2003). 둘째, 박물관 전시실의 전시방법과 그 효과에 대한 연구를 들 수 있다(장현숙, 1996; 백지운, 1999). 셋째, 박물관 조직, 운영, 정책 등 마케팅과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연구를 들 수 있다(양현미, 2001; 류숙진, 2005). 마지막으로, 90년대 후반부터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박물관교육 관련 연구를 들 수 있겠다. 박물관교육과 관련한 연구는 주로 박물관 전시실에서의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및 효과, 박물관-학교 연계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그 주를 이루고(조숙희, 2006; 김민아, 2005)²⁾, 그 이외에 역사적인 관점에서 박물관의 교육적 의의를 살핀 연구(국성하, 2003)와 박물관교육공간에 대한 연구가 일부 있다. 이와 같이 박물관교육에 대한 연구는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부분에 치우쳐 있는 실정이고, 실제 박물관교육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경험에 대한 연구³⁾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박물관을 단순히 유물 전시와 수집 기능을 하는 곳이 아닌, 문화교육기관으로 본다면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이외에 실제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박물관에서 일어나는 교육활동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전시실 밖에서 일어나는 문화, 예술, 역사에 관한 일반적인 강좌형식이고, 또 한 가지는 전시실에서 유물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활동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박물관교육 활동에 참가하는 대상은 어린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오늘날 많은 성인들이 다양한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관심과 흥미에 따라 여러 가지 성인강좌를 수강하고 있고, 전시실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다.

한편, 성인들은 관람자로서 전시실 교육활동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도슨트라는 전시실해설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일반관람객들을 대상으로 가르치는 역할도 한다. 도슨트 활동을 통해 그들은 전시에 필요한 공부를 스스로 해 나가면서 가르치고 배우는 학습활동을 지속해 나간다.

2) 이 외에도 다수의 논문이 있다.

3) 이러한 최근의 연구로 최은미(2005), 「박물관 교육참가자의 교육적 경험에 관한 연구」, 박선영(2006), 「아동참여 관점에서 본 초등학생의 박물관경험 연구」를 들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연구는 주로 설문지를 활용한 양적 통계 분석 방법을 따르고 있어 실제 교육활동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하며 그 경험이 개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살펴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자의 도슨트 활동에 대한 관심은 2001년에서 2002년에 걸쳐 약 1여 년간 박물관 교육 분야에서 인턴으로 근무할 때부터 시작되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4~5년간 그들과 함께 박물관 해설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전시실 해설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들의 해설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박물관에서 직접 관찰하기도 하였다. 연구자는 이러한 관찰을 통해, 도슨트들이 처음 박물관에 입문하여 낯설어하는 모습에서 이후에는 전문적인 해설자로서 변해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활동과 경험에 보다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와 같이 박물관은 성인들에게 전시물을 관람할 수 있는 문화기관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교육공간으로서도 많은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자는 도슨트들의 이러한 교수, 학습활동에 주목하고 박물관에서 이루어지는 성인들의 교육활동 경험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즉, 성인들은 도슨트 활동을 통해 어떤 경험을 하고, 그들에게 그 경험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따라 다음 세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교수자로서 도슨트의 경험은 어떠한가? 둘째, 학습자로서 도슨트의 경험은 어떠한가? 셋째, 도슨트 활동을 통해 그들이 경험하는 삶의 변화는 무엇인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구 참여자의 경험과 그 경험의 의미를 연구하는데 초점을 두는 현상학적인 연구방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현상학적인 방법을 통해 연구자가 아닌 연구 참여자의 입장에서 박물관에서의 교수자, 학습자로서의 경험을 이해하고, 그 경험을 통한 삶의 변화와 의미는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II. 성인학습과 박물관

학교교육이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그들만의 교육과정을 통해 폐쇄적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을 의미했다면, 성인학습은 성인들이 가진 기존의 직업경험, 생활경험, 학습경험에 근거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시설에서 학습활동이 전개되는 것을 의미한다(권두승, 조아미, 2007: 17). 이때 성인은 생물학적인 연령상 어른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생산적인 일을 수행하고 자신의 삶에 대해 기본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성인학습은 개인적인 욕구나 사회적인 필요에 의한 의도성과 자발성을 가지고 주로 ‘자기 주도적인 학습(self-directed learning)(Knowles, 2005)’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성인학습이 타인의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내적인 동기와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행동을 선택하고 수행함을 말한다. 오늘날 성인학습이 부각되는 이유(권두승, 조아미, 2007: 22-23)는 다양한 사회경제적인 요인에 따른 것인데, 우선 성인인구의 증가와 그에 따른

학습요구의 증대를 이유로 들 수 있다. 또한 새롭게 변모된 경제구조에 의해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있어 성인들은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끊임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뿐만 아니라, 기술의 변화와 현대사회의 발전에 따라 모든 조직은 지속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것은 비단 사회와 조직의 변화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적응하고 생존하기 위한 개인의 변화까지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오늘날의 상황은 학교교육만으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학교교육이후의 지속적인 학습, 즉 평생학습이 요구된다. 오늘날을 평생학습사회라고 하는 의미는 교육이 학교교육에서 끝나지 않고 평생에 걸쳐 지속된다는 뜻을 지니는 한편, 지금까지 교육현장에서 소외되어 온 성인의 학습활동을 체계적으로 재구조화 할 것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다(권두승, 조아미, 2007: 21).

성인학습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에서 일어난다고 할 때, 박물관은 성인교육기관으로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린이들이 주로 박물관-학교연계 프로그램이나 가족 단위 관람을 통해 박물관을 접하고 교육활동에 참여한다면, 어른들에게 있어 박물관은 학교교육이후의 학습활동 장소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관심사나 흥미, 필요에 따라 박물관 강좌를 선택·수강하고, 전시실에서는 전시물 관람을 통해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학습하기도 한다.

박물관교육은 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다는 점에서 평생교육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박물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화, 자연, 인간에 대한 직·간접적인 체험과 다양한 기회는 오늘날의 제도교육이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이다(김인회, 1997: 20).

또한 성인은 도슨트와 같은 전시실해설자원봉사자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전시물에 대한 학습활동 이외에 가르치는 활동에 참여하기도 한다. 도슨트는 전시물 내용과 그 배경이 되는 역사 문화에 대해 일정한 기간의 교육을 수료한 후에 전시실에서 해설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주로 4~50대의 전업주부이거나 퇴직한 6~70대의 남성들로, 역사와 문화에 대해 기본적으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 연구의 대상이 된 들꽃 박물관의 경우, 도슨트가 되기 위해서는 전시실에서 일반자원봉사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한 후에 박물관 학예사 앞에서 전시실해설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도슨트는 전시유물과 역사적인 배경 지식 등에 통달해야 하고, 자신만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박물관전시실 해설을 이끌어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학습과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도슨트가 된 이후에도 그들은 관람객을 위한 전시실 해설이라는 뚜렷한 목적 하에 학습활동을 지속하고 학습한 내용을 다시 전시실해설에 활용한다. 이때 도슨트들이 관람객에게

전달하는 박물관 지식은 도슨트 스스로가 ‘전시의 해석자’(백령, 2005: 76)가 되어 전시물에 대해 자신의 언어로 이해한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의 해설은 전시 속 전시품에 생명을 불어 넣는 작업이자, 관람객들이 전시유물과 박물관 자체에 흥미를 느끼도록 해주는 활동이다. 그리고 박물관을 찾는 다양한 연령, 성별,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즐겁고 의미 있는 박물관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슨트들은 박물관지식 이외에 탁월한 ‘의사소통 능력(Helga Keller, Carole Kramer, 2001)’도 갖추어야 한다.

전시실 해설을 위한 도슨트들의 학습 과정은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개인학습, 상호학습, 집단학습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난다. 그리고 성인들은 이러한 학습활동에 자신의 이전의 경험이나 지식을 활용하기도 한다.

문화를 배우는 학습자이면서 동시에 지역민에게 문화를 가르치는 전시실 교사 역할을 하는 도슨트들은 박물관 전시실교육 활동의 중심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지속적인 학습 활동을 통해 자신의 관심영역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넓혀 가고, 그것을 다시 관람객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이 전시실해설을 통해 배움과 가르침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박물관 도슨트 활동은 성인교육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박물관은 성인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III. 연구 방법 및 절차

1. 현상학적 연구방법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후설이 창시한 현상학의 철학적 전통에 토대를 두고 발전된 연구방법이다. 심리학, 간호학, 교육학 등 다양한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서 “체험연구(lived experience research)”는 지오르기(Giorgi), 콜라이찌(Colaizzi), 밴 마넨(van Manen), 밴 캄(van Kaam), 무스타카스(Moustakas) 등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개발되어 왔다(이남인, 2004:1).

질적연구방법으로서 현상학은 인간의 경험⁴⁾을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그 경험 내부에

4) 경험은 체험보다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체험은 전체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경험들의 체계의 일부이다(Van Manen, 1994:22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박물관 도슨트 활동이 2~3년에 걸친 지속적인 활동이라는 점에서 체험이라는 용어보다 경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있는 의미와 본성, 본질적인 구조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그것은 한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의 단계와 의미를 기술(description)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객관성으로의 복귀(신경림, 2001: 55)’를 말한다. 현상에 대한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 현상학은 연구자의 선입견이나 편견을 배제하고 ‘사물들 그 자체’, 즉 즉각적인 경험의 대상으로 돌아갈 것을 강조한다.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가정들을 보류하고 제쳐들으로써 자신의 주관에 의해 채색되기 이전의 살아있는 원자료를 수집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을 ‘현상학적 판단중지 및 환원 방법’(이남인, 2005) 또는 ‘괄호치기(신경림, 2001)’이라고 한다. 이를 통해 부정확한 토대 위에 세워진 모든 원칙들과 개념들, 모든 독단적인 사고방식들과 편견들을 버리고 오로지 사물들 그 자체로 돌아가게 된다(이남인, 2005: 6).

스피겔베르그(Spiegelberg)는 다양한 연구자들이 취한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다음 일곱 가지로 들고 있다(신경림, 2001: 37-38) 첫째, 특정한 현상을 살펴본다. 둘째, 일반적인 본질들을 살펴본다. 셋째, 본질적인 관계를 이해한다. 넷째, 나타나는 양식들을 관찰한다. 다섯째, 의식 속에 있는 현상의 구성을 탐색한다. 여섯째, 존재에 대한 믿음을 보류시킨다. 일곱 번째, 숨겨진 의미들을 해석한다.

지오르기(Giorgi)의 설명에 따르면(이남인, 2004:13),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연구자가 경험적 판단중지 및 환원 방법을 사용해 개별적인 체험들의 구조를 파악한 후, 다시 이러한 개별적인 체험들을 토대로 하여 자유변경 과정을 거쳐 이 체험들의 본질적인 구조를 파악하고 이러한 본질적인 구조를 기술함으로써 체험연구가 완결된다고 보았다.

스피겔베르그(Spiegelberg)와 지오르기(Giorgi)의 연구방법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특정한 경험과 현상을 살펴본다. 둘째, 현상의 본질적인 관계를 이해하고 드러나는 모습을 관찰한다, 셋째, 연구자의 믿음과 판단을 보류하고 현상의 구조를 탐색한다. 넷째, 본질적인 구조를 파악하고 기술(description)한 뒤, 해석한다.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사물 그 자체로 돌아가라’는 현상학적 접근법에 충실하여 현상에 편견 없이 접근하고, 현상의 본질을 그 현상에 즉해서 해석하고자 연구자가 가진 가정과 선이해를 미리 밝혀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슨트 활동은 전시실에서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전시물을 해설하는 활동이므로, 거기엔 반드시 가르치는 활동과 그 가르침을 위한 학습활동이 일어날 것이다. 둘째, 도슨트들은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가정이나 직장에서의와는 다른 경험을 할 것이며, 그로 인해 자신의 내면이나 가족, 친구 등 사회적인 관계에서 변화를 경험했을 것이다. 셋째, 도슨트 활동 경험은 도슨트의 연령, 성별, 학력, 경제적 배경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2. 연구 참여자

현재, 부산의 들꽃 박물관에서 3~4년 전부터 도슨트로 활동하고 있는 성인 남녀 6명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들꽃 박물관의 전체 도슨트는 22명이며, 그 중에서 여자가 17명, 남자가 5명으로 여성들이 남성들 보다 현저히 많다. 아마도 남성들은 60대 미만일 경우 주로 직장생활을 하므로, 도슨트 활동을 할 기회나 가능성이 적다고 볼 수 있다. 들꽃 박물관의 남성도슨트가 모두 70대 초반이라는 것도 이러한 점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들꽃 박물관의 도슨트를 연령대 별로 살펴보면, 40대가 6명, 50대가 9명, 60대가 1명, 70대가 6명으로 4~50대가 전체 도슨트의 약 70%를 차지한다. 4~50대 여성이 주를 이루는 것은 아마도 자녀양육과 가정생활에서 자유로워진 여성들이 남성들이나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박물관 활동에 참여할 기회나 가능성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도슨트의 성비나 연령 분포를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40대 2명, 50대 2명, 60대 1명, 70대 남성 1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의 엄밀성을 위하여 연구 참여자의 학력이나, 경제적 능력, 사회활동 유무 등을 고려하였으며, 이에 대해서는 현재 들꽃 박물관의 도슨트 회장으로 활동 중인 김지선(가명)씨의 도움을 받았다.

<표 1> 연구 참여자들

이름 구분	현재 상황	학력 및 전공	경제적 능력	사회활동 유무
장희선	40대 초반 전업주부	대졸. 사학과	남편이 자영업에 종사. 생계유지에 어려움 없음.	대학 졸업 후 4~5년간 일반 회사 사무직으로 근무.
정윤미	40대 후반 전업 주부	고졸. 현재 방송통신대 일본학과에 재학 중	남편이 법률계 전문직으로 근무.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상황	15년간 공무원 생활.
강효금	50대 초반 독신	고졸	나이와 학력의 제한으로 취업이 어려움.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	20여 년간 회사 경리직, 8년간 보험회사 영업 활동.
지수선	50대 후반 전업 주부	대졸. 생물학 과	남편이 치과의사.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상황.	40초반부터 후반까지 여성의 전화, 학생진로상담 자원봉사 활동
양진옥	60대 중반 전업 주부	대졸. 사학과	남편은 전직 의사. 경제적으로 비교적 여유로운 상황.	대학 졸업 후 약 2년간 교사생활
황윤식	70대 초반 퇴직 교사	대졸. 독어독 문학과	부부교사로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상황.	약 35년간 고등학교 독일어, 영어 교사로 재직.

질적연구는 사물이나 현상의 맥락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논리와 언어를 통해 연구가 진행된다(조용환, 1999: 23).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도 박물관 도슨트들의 활동이 어떤 상황과 맥락에서 일어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연구대상이 되는 들꽃 박물관의 도슨트들은 주로 2003년 5월 자원봉사자교육을 실시한 이후에 선발된 사람들로서, 전시실에서 해설 자원봉사를 해 온 사람들이다. 자원봉사자 회장 김지선씨를 비롯해 일부 도슨트들은 2003년 9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하였지만, 그 이후에도 2차례에 걸쳐 도슨트 인원 충원이 있었다고 한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밝힐 것은, 들꽃 박물관의 자원봉사활동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는 것이다. 도슨트 같이 전시실 해설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사람들과, 단지 전시실에서 질서유지와 안내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일반 자원봉사자들이다. 실제 들꽃 박물관의 도슨트가 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일반자원봉사자로 1년 이상 활동을 한 후, 2~3명의 박물관 학예연구사 앞에서 1~2시간 이내에 박물관 전시실 전체를 설명하는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선발된 도슨트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공부에 대한 의욕과 자신의 활동에 대한 자부심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전시실에서 일반 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도 기회가 된다면, 실력을 올려서 도슨트로 선발되기를 바라는 경향이 있다.

3. 자료수집

이 연구의 자료는 주로 연구 참여자들과의 1, 2차 인터뷰를 통해서 수집되었고, 그 외에 연구자가 박물관교육 인턴으로 근무할 당시 실시한 자원봉사자교육 자료 및 전시실 해설활동에 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일부 활용하였다.

1차 인터뷰는 2007년 1월 12일부터 2월 23일에 걸쳐 박물관의 조용한 장소에서 6명의 도슨트에 대해 개별적으로 실시되었다. 인터뷰를 하는 동안 녹음과 기록을 병행하였으며, 인터뷰 후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녹음된 내용을 전사하였다. 각 연구 참여자들과의 1차 인터뷰시간은 1시간 30분~2시간 정도였고, 인터뷰는 주로 비구조화된 질문을 통해 이뤄졌다. 하지만 도슨트 활동에 대한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충분히 이끌어내기 위해 다음 5가지 질문을 인터뷰 과정에서 제시하였다.

<질문내용>

1. 박물관 도슨트로 활동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2. 전시실에서 해설활동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가르치는 내용, 방식, 에피소드)
3. 박물관에서 관람객들에게 해설하기 위해 무엇을 공부합니까? 그리고 공부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십시오.
4. 도슨트 활동을 통해 자신의 내면, 가족, 사회적(친구) 관계 등에서 일어난 변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5. 도슨트 활동에 대한 앞으로의 바람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1차 인터뷰 내용을 전사한 후, 전사내용을 확인하고 연구자의 잠정적인 분석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박물관에서 연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짧은 개별면담을 실시하였다. 이후,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되어 2차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2007년 7월 3일부터 7월 15일 사이에 연구 참여자들이 해설하는 요일에 맞추어 박물관을 재방문하여 2차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40~50분 정도의 인터뷰를 통해 연구문제와 관련된 부분을 다시 확인하고 추가사항을 기록하였다.

4. 자료분석

많은 현상학 연구자들이 콜라이찌(Colaizzi), 지오르기(Giorgi), 그리고 밴 캄(Van Kaam)이 발전시킨 방법들(신경림, 2001: 29-30 참조)을 채택했고, 대부분의 경우에 적용해왔다. 연구자 또한 세 학자들이 제시한 분석절차를 바탕으로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의 구체적인 분석, 해석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녹음된 연구 참여자들의 인터뷰 내용을 듣고, 그 필사본을 여러 번 읽으면서 진술된 내용들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반성하였다. 그 과정에서 연구자의 직관을 필사본에 메모하였다. 둘째, 각각의 필사본 속에 있는 의미 있는 진술들을 끌어내고, 그 진술 각각에 제목을 붙였다. 셋째, 각각의 의미 있는 진술들을 연구자가 파악하고 범주화한 세 가지 주제에 따라 분류하였다. 넷째, 분류된 주제내의 각각의 진술들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여러 번 파악하고 기술(description)한 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석된 내용을 연구 참여자들이나, 동료 연구자들에게 확인하고 해석하였다.

한편, 연구자의 인턴근무 및 전시설해설 활동 경험이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음을 밝힌다. 연구자는 오랜 기간 그들과 라포(rapport)를 형성하고 전시설 해설 활동을 함께 해 왔기 때문에, ‘외부인’이기보다는 ‘내부인’의 입장에서 그들의 진술을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이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해석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했지만, 객관적인 시각을 견지하는데 어려움을 주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5. 연구의 타당도 확인

Moustakas(1994)에 따르면 현상학적 연구 결과의 타당성은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외부의 다른 연구자가 검토함으로써 얻어지기도 하지만, 일차적으로는 연구자 자신에게 달려 있다고 본다(John W. Creswell, 1998: 251). 따라서 본 연구자는 연구의 타당성을 위해 연구대상자와의 인터뷰부터 전사한 내용을 분석하는 연구의 전 과정을 반성적으로 자문하였다. 그리고 자료 수집을 통해 연구자가 도출한 분석과 결론을 연구 참여자들에게 제시한 후, 자신들의 경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였다. 분석한 자료와 결론을 동료 연구자 2-3명에게 확인함으로써 신뢰성을 보다 높이고자 했다.

6. 연구의 윤리성

이 연구는 연구 참여자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여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를 반드시 연구를 위한 목적에만 사용할 것을 밝혔다. 그리고 연구 결과를 서술함에 있어, 연구 참여자들의 이름과 박물관 명은 가명으로 처리하였다.

IV. 연구 결과

이상의 과정을 거쳐 연구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전시설에서 가르치며 경험하는 것들

가. 해설은 관람객의 눈높이에서 주고받는 것

학교에서 초임교사들이 처음엔 좌충우돌하며 학교생활에서 자신만의 교수법을 터득해가듯이, 박물관 도슨트들도 여러 번 관람객들을 접하면서 자신의 해설 포인트를 찾아간다. 그리고 해설이 일방통행이 아닌 상호작용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경험을 통해 느낀다. 따라서 대상에 따라 어떻게 해설할 것인가를 도슨트들은 항상 고민한다.

그게 연령대 별로 다른 것 같아요. 초등학교 저학년이라든가, 초등학생들한테는 유물 자체로 용도나 이 시대는 어떻게 살았단다 등을 설명하고 초등학교 6학년부터는 선사부터 근현대까지 전반적인 역사가 교과서에 나오거든요. 개네들은 흐름을 짚어줘야 할 것 같아요. 일반인들한테는 그것보다는 유물위주로 해설을 하죠. 일반인들이 중등학교 때 배운 흐름을 거의 알잖아요? (장희선)

일반시민들은 하나라도 전문용어가 들어가면 어려우니까 말을 해줘야 되거든요. 아이들은 내가 완전히 그 아이 수준으로 돌아가는 거죠. 4학년 이면 4학년 수준, 중학생이면 중학생 수준...(강효금)

박물관안에서 해설활동은 나이와 성별에 따라 조금 다르게 나타난다. 초등학교 아이를 둔 40대 주부에게는 초등생을 대상으로 한 해설이 쉽게 느껴질 수 있지만, 나이가 많은, 특히 남자 도슨트에게는 그야말로 힘든 상대가 초등학생이다. 아이를 다루는데 있어서 친숙하지 않은 점이 해설에 어려움을 준다. 반면 젊은 주부들은 아이를 다루는 일에 익숙해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과의 해설을 보다 즐기는 경향이 있다.

초등학교 애들 오는데, 그 초등학교 애들이 제일 겁나. 왜 겁나냐면, 그 애들한테는 쉽게 이야기해줘야 되니까.(황윤식)

제가 봤을 때는 아이들과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됐을 때 그 때가 정말 재미있는데... 오고 가면서 서로 대화식으로, 일방적인 설명이 아니고 서로 왔다갔다 하면서 시간이 언제 흘러갔는지도 모를 정도일 때는 재미있죠.(장희선)

나. 관람객에게 역사의식을 심어준다는 책임감

도슨트들은 관람객들에게 전시물 내용을 전달하는데 있어, 단순한 내용전달자 수준을 뛰어넘어 비판적인 사고와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역사박물관이라고 하는 특정한 상황아래에서 활동하는 그들에게 역사는 연대표 같이 시대를 나열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즉, 지면이 아닌 역사적 실물을 앞에 두고서 관람자들에게 해설하는 그들에게 역사는 보다 생생하게 다가온다. 그들이 실물을 해설하면서 느끼는 역사의식과 생동감은 전시실에는 거의 나타나 있지 않다. 따라서 그들의 이러한 경험이 관람객들에게 역사의식을 전달할 책임

감을 느끼도록 만든다고 할 수 있다.

통일신라실 설명할 때 지도가 있거든요. 그 지도에 보면, 신라 경계가 나와 있어요. 전 그것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 지방에는 발해가 있다 지금 중국이 발해를 자기네 역사라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우리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중국이 자기네 역사라고 할 때 제대로 반박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특히 아이들이 오면 이 얘기를 해요.(장희선)

또 제가 주장하는 것은 역사의식을 오는 관람객들에게 심어줘야 되겠다. 우리나라에 철기문화가 있었을 때 일본에는 그때 철기가 없었다. 이 철기문화를 가진 나라를 자기네가 지배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저는 해줍니다. 그런 거는 전혀 전시는 안 돼 있죠. 그런 일이 도슨트들이 해야 될 몫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자주합니다.(지수선)

다. 가르치면서 느끼는 기쁨과 보람, 어려움

도슨트들은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을 위해 해설활동을 하지만, 그것을 마치고 난 뒤에 오는 기쁨과 보람은 자기만족이기도 하다. 때로는 관람객이 나의 설명에 집중하지 않을 때는 속상하고 허탈해지기도 한다.

내가 공부한 거를 충분히 발표했을 때, 음 내가 정말 만족하는 설명을 했을 때에 그 쾌감이라는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기라... 발표를 들은 상대방, 관람자들이 수고를 하고, ‘아 잘 들었습니다.’ 하고 오렌지나 음료수 한 병을 건넸을 때, 그런 거 있지? 바로 그거지. 그리고 내가 완벽한 설명을 했다고 할 때 바로 그거.(양진옥)

사람들이 내가 이야기한 것을 잘 듣고 뭔가 알고 갔다 하면 보람을 느끼는데. 학생들 경우 단체로 와서 내가 설명을 했는데 탄짓하고 그랬을 때 정말 속상하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봉사만 해도 될 것 같은데 하는 생각도 가끔 들어요.(장희선)

대학교육을 받지 못한 도슨트에게 이러한 해설활동은 대리만족의 장이 되기도 한다. 교사가 꿈이었던 사람에게는 박물관에서 가르치는 사실 자체가 기쁨이 되기도 한다.

선생님, 제가 원래 꿈이 학교 선생님 되는 게 꿈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런데 못 갔기 때문에, 그걸 대신하는 대리만족이라고 할까.. 이것도 일종에 가르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대서 굉장히 만족스럽죠.(강효금)

라. 나이가 주는 장점과 조심스러움

역사박물관일 경우, 경험과 연륜을 많이 가지고 있는 도슨트는 자신이 경험한 시대와 사건을 해설할 때 훨씬 현장감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나이 많은 도슨트가 항상 젊은 사람들에 비해 불리한 것은 아니다. 그들의 살아온 삶의 경험이 해설을 보다 풍부하게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주는 부담감이 결코 없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나이가 많은 도슨트들은 연장자로서 해설의 어려움을 가지고 조심스러워하기도 한다.

근대 현대 실은 나 좀 나이가 있으니까, 전시자료를 읽어보면 다 연결이 되죠. 그리고 광복 코너하고 민주화 코너는 안 봐도 될 정도니까. 내가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냥 보는 거고. 다른 젊은 사람들 보다 쉽게 친할 수 있으니까.(황윤식)

나이가 들어가지고 좀 더 농도 짙은 인자 설명을 할 수 있었으면... 나이에 어울리는 설명을 할 수 있어야 안 되겠나. 하이튼 나이가 드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워져. 젊었으면 젊었다고 봐주는 게 있지만, 나이들었으면 그것은 오롯이 자기 그거니까. 그런 책임감이 나는 항상 조심스럽고...(양진옥)

마. 나의 해설활동 되돌아보기

도슨트들은 반복되는 해설활동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해설활동을 반성한다. 이를 통해 그들은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공부하도록 자극 받는다. 그들은 공부뿐만 아니라 관람객들과의 의사소통에서 오는 부족함과 어려움도 극복하고자 노력한다. 또한 해설시 스스로 겸손해져야 함을 느끼고, 보다 나은 설명을 하기 위한 고민을 하게 된다.

내가 해설하고 나서 이걸 잘 못했다, 이걸 좀 약했다, 조금 더 보완해야 된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부해야 돼요.(황윤식)

지금 누가 봤으면, 진짜로 젊은 아들(애들)이 봤으면, 정말로 코딱지 만한 그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혹시 내가 뽐낼까 봐 싶어가지고. 혹시 내가 난채 할까봐, 혹시 내가 그런 실수를 할까봐, 나는 그걸 항상 염두에 뒀. 참 낮출려고 애를 써. 뭐 낮출 것도 없지만은.(양진옥)

해설을 하든지, 안내를 하든지 재미있게는 내가 못하거든요... 잘 한다는 소리를 듣더라도 좀 재미있게 참 잘한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내가 개발을 하고 연구를 했으면 좋겠는데...(강효금)

사실은 제가 목소리가 부드러운데다가 키가 작고 하니 잘못하면 관람객들에게 묻혀요. 관람객들이 워낙 크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극복하나, 이게 저한테는 제일 큰 숙제입니다.(정윤미)

해설활동은 도슨트들의 ‘학습의 원동력이면서, 관람객과의 일체감을 통한 자기만족·보람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도슨트들은 전시실 해설을 위해 공부를 시작하고, 다시 해설을 통해 전시실 공부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자 한다. 그들이 해설에서 관람객에게 전달하는 것은 전시유물의 사실적인 지식이라기보다는 그들 나름의 이해를 통해 재구성된 지식이다. 지식을 재구성하는 과정은 관람객의 눈높이에 맞춰 해설하고자 하는 도슨트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재구성된 지식을 관람객에게 전달하는 과정은 성별, 나이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 40대 초반의 전업주부의 경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설하기가 다른 도슨트에 비해 쉽겠지만, 70대의 남자 도슨트는 초등학생 관람객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반면, 그들은 젊은 사람들에 비해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자신이 경험한 역사적인 사실에 있어서는 보다 현장감 있게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도슨트의 활동은 이전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은 성인학습과 교육에서 경험이 가지는 중요성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관람객들에게 해설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관람객과 상호작용이 잘 되었을 때 보람과 기쁨을 느낀다. 관람객을 위한 해설활동이지만, 그것은 결국 자기만족이라는 결과로 돌아옴을 알 수 있다.

2. 도슨트 활동은 지속적인 학습의 과정

가. 일상 속에서의 반복과 연습

도슨트들의 공부는 전시실 해설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그들은 전시실에 있는 유물들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해설 자료집과 박물관 도록을 들춰보며 반복학습을 한다. 이러한 과정은 관람객들에게 유물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기초가 되며, 유물과 배경지식으로서의 역사 문화에 대한 보다 깊은 공부의 시작이기도 하다.

도슨트라는 게 그냥 와서 하는 노동봉사가 아니고 항상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사실 박물관 오지 않더라도 집에서 박물관 전시실을 공부하기 위해서 시간이 참 많이 들어갑니다...항상 화장대 위에 전시실 설명 자료가 놓여 있습니다. 화장하다가도 한번씩 보고, 보다가도 어 이게 뭐지 하면서 보면 30분이 되죠. 그런 식입니다. 제가 공부하는 게.(정윤미)

끊임없는 연습, 그리고 내가 나갔을 때에 그 시간에 내가 잡고 있는 시간을 그 사람들이 충분히 잘 들었다고 느끼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내가 항상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 그것도 반복이더라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중요한 거는 항상 메모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것도 또 연습인거라.(양진욱)

나. 학습 영역의 확대와 탐구의 시작

평소 도슨트들의 해설활동은 단순히 전시실 자료를 반복적으로 관람객에게 전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해설활동을 통해 전시실 전체 유물과 그 유물의 배경이 되는 역사와 문화에도 어느 정도 통달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즉, 전시실에서의 해설활동 자체가 도슨트의 학습을 촉진시킨다. 한편, 도슨트 스스로의 문제의식이 그들의 학습영역을 심화시키기도 한다. 누군가의 강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전시실에서의 경험이 자발적인 학습을 만들어낸다. 전시내용을 보다 깊이 있게 공부하기 위해 진학을 결정하기도 하고, 또는 다양한 학습 자료를 활용하면서 공부영역을 확대해 나가기도 한다. 공부할거리가 생긴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즐겁고 재미있는 일이다.

선생님들이 우리가 공부한 유물 그건만 어느 정도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데, 하다 보면 아이들이 그것만 묻는 건 아니잖아요. 옆에 있는 유물도 물으니까 전체적으로 알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번 겨울방학을 통해서 전시실 전체를 한 번 공부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장희선)

한일관계실에서는 조금 있잖아요. 우리가 좀 우리나라 우월주의 이런 것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뭔가 묻혀져 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그런 뜻에서 제가 사실은 박물관 도슨트를 하면서 공부를 다시 해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통신대학교 일본학과에 갔어요..(정윤미)

계속 들여다 보고, 연구를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국사만 보다가 세계사도 보고, 지리도 보고, 역사 부도도 보고.. 그렇게 봐지는 거라. 아니,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설명은 꼬집어 말하지는 못하지만, 지도도 떠오르고, 그래 그것도 떠오르고 하는 거라(양진욱).

불상이라든지, 탑이라든지, 석등이라든지 불교 쪽으로 좀 하고 싶어요. 너무 어렵지만. 사실, 어려워도 재미있어요. 개인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는데..(강효금)

다. 다양한 방법으로 학습하기

도슨트들의 해설을 위한 학습방법은 다양하다. 그들은 전시유물 자체를 공부하는 것 이외에 강좌를 듣는든지, 역사책, TV 다큐멘터리, 신문, 잡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시해설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식을 습득한다. 그들은 이러한 지식습득을 통해 자신의 해설내용을 보다 풍부하게 하고, 관람객들과의 나눌 수 있는 이야기 거리들을 많이 만들게 된다. 이때 그

들이 선택하는 학습방법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책을 통한 지식습득은 기본적으로 하면서 나머지 방법들을 활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나이가 많은 도슨트의 경우 책이나 사전 같은 서적류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컴퓨터같은 매체는 조금 덜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

강좌 듣고, 그래 인자 책하고 하는데. 사실로는 책 같은 걸 한 번 읽으니까, 사람들의 그 전문지식이 굉장히 ‘화’하게 퍼지더라고. 이해가 빨리 되네.(양진옥)

다큐멘터리도 보고 또 공책에 메모한 공책들 보고, 강의 들었던 것들 보고, 그러죠. 저는 해설하는데, 어 그런 책들보다도 신문에 나는 어떤 칼럼 같은 거 보면서 정말 관람객들하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걸 그런 데서 더 많이 얻는 거 같아 예.(지수선)

주로 역사책이죠. 여긴 조선실이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조선관련 역사책.. 난 컴맹이니까 컴퓨터가 되면 많이 활용할 텐데.. 사전을 주로 활용하지. 사전으로도 해결이 안 되면 여기 박물관에도 자료가 많으니까. 박물관이나 도서관 자료를 활용하지.(황윤식)

한편, 도슨트들은 개인적으로 학습하는 것 이외에, 같은 동료들의 해설을 보면서 배우기도 하고, 팀별 스터디를 통해 실물을 보면서 전시유물을 공부하기도 한다. 이때 그들에게 전시실은 학습장이 되고, 전시유물은 학습도구가 되는 셈이다.

우리 박물관에 ○○○선생님 있잖아요. 그 분이 아이들에게 설명할 때 참 재미있게 설명해요. 그걸 하나를 유인물로 만들어냈거든요. 선생님이 거기에 맞게 유인물을 만들어 갖고. 우리가 읽어봐도 재미가 있어요. 아,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정윤미)

팀으로 하는 공부는, 스터디 자료라고 해서 각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스터디 자료를 제출해가지고 그걸 이론상으로 봉사자실에서 공부를 해요. 하고서는 나와가지고 다시 전시실에서 그걸 실제로 맞춰 보면서 설명을 하고 그러죠.(정윤미)

라. 세심한 공부의 어려움과 공부 그 자체의 기쁨

관람객들에게 해설하기 위한 공부는 소설책을 읽어 내려가듯이 가볍게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다. 개별적인 각각의 사건과 지식을 재구조화해 자신의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한다. 그래야 만이 관람객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언어로써 그 시대와 유물을 해설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과정이지만, 그 자체가 하나의 기쁨이기도 하다.

꼼꼼하게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읽어야 하니까. 이미 기억력은, 외우는 힘은 다 소진되었었고. 공부하면서 능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하나 풀이해가면서 그것들을 앞의 이야기와 뒤의 이야기를 끈으로 엮어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니까 힘든 거죠. 정말 정독을 해야 하고 필기도 해야 하고 사진도 찾아봐야 되고...(황윤식)

그거 끊임없이 재미있지. 내가 생각하는 거를 조그맣게, 조그맣게 들어가는데, 조금씩 조금씩 들었던 그게, 딱 짝잇기를 이어가지고 하나의 큰 천이 된 거 같이, 천이 된 것처럼 한 장씩 겹쳐지고, 또 아 그 선생님 설명은 내가 이거 이거 책을 읽음으로써 해 가지고 그게 바로 이거였구나 하고 확인되고.. 끊임없이 책이 읽어드는 거라.(양진옥)

해설 활동을 통해 동기화되는 도슨트들의 학습과정은 ‘자발적·자기주도적인 학습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도슨트들은 끊임없는 지적추구의 기쁨과 만족을 경험한다. 그들은 관람객 해설이라는 뚜렷한 목표아래 학습을 시작하고 학습한 내용을 일상 속에서 반복하고 연습을 거듭한다. 또한 도슨트들은 자신의 해설을 되돌아보고 반성함으로써 단편적인 지식이 아닌 깊이 있는 공부를 하게 된다. 이때 그들은 다양한 학습방법을 찾는다. 책을 비롯한 강좌, TV 다큐멘터리, 신문, 잡지 같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해설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식을 습득하고 그 공부한 내용을 다시 전시해설에 활용한다.

이와 같이 박물관공부는 박물관 전시와 유물을 주제로 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그들의 학습에는 교수자가 따로 없다. 그들은 해설활동이라는 경험을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교과내용과 방법 등을 찾아낸다. 필요에 따라 공부한 내용을 공유하기도 하지만, 학습 방법은 도슨트 각각에 따라 다양하다.

3. 도슨트가 된 이후의 삶의 변화와 의미들

가. 가족들의 관심과 지지

대체로 도슨트가 박물관해설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가족들은 많은 지지와 관심을 보인다. 활동에 필요한 책을 대신 구입해준다든지, 시간약속에서 활동시간을 배려한다든지 하는 등 도슨트들의 활동에 가족들은 크고 작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목요일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박물관을 가야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목요일은 어떤 약속이라도 그 날은 안 합니다. 다른 중요한 약속이 있더라도 그 날은 비켜줘요. 적극적으로 박물관 봉사활동을 하도록 밀어줍니다.(정윤미)

서울에 있는 둘째는 전화할 때마다 필요한 책 없냐고 물어보죠. 하도 그런 얘길 자주 하길래. 기회를 주기위해서 책 한 권 사달라고 했지....(황윤식)

도슨트 가족들은 자신의 가족이 도슨트로 박물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가족들이 박물관을 접하는 횟수도 늘고 박물관을 보다 가깝게 느끼고 있었다.

마침 한번은 우리 둘째 아이 학교에서 견학을 온 거예요. 그 때 우리 목요일 팀하고 같이 해설을 했는데, 제가 우리 아이 반을 맡았죠. 우리 아이 선생님한테도 엄마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 우리 아이는 흐뭇해가지고...(정윤미)

가족끼리는 이 활동을 하면서 박물관을 더 많이 접하게 되었고 저희 시어머니는 친구분들이라든가, 다른 분들한테 이야기 할 때는 은근히 자랑삼아 얘기를 하세요. 박물관에서 이런 해설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세요.(장희선)

나. 도슨트 활동이 주는 소속감

박물관 도슨트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가정의 전업주부였거나, 퇴직교사인 경우가 많다. 특히, 주부들의 경우, 박물관활동을 통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사회적 소속감과 규칙적인 생활을 가진다는 것이 생활에서 하나의 큰 변화이다. 가정의 주부 위치가 아닌 바깥 활동에서 규칙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에서 그들은 자긍심을 가지는 것 같다. 또한 사회적 존재로서 자신이 고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에서 마음의 위안을 얻기도 한다.

여기 박물관에 정기적으로 오니까, 꼭 내가 직장에 다니는 것처럼 느껴져서 규칙적이고 타이트하게 뭔가 짜여지게 된다는 거에서 괜찮은 것 같구요. 그리고 내가 정기적으로 어디 나갈 곳이 있다는 것이 좀 좋고 그래요.(장희선)

소속감이 계속 유지되는 거죠. 현직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람이 조금은 매여야 하는 것 같아요.(황윤식)

일단은 매일 나가야 되는 곳이 있고, 나가서 할 일이 있고,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돈하고 관계없이 뿌듯함을 느끼기 때문에 굉장히 의기소침해지는 부분이 없어지는 거죠.(강효금)

다. 다듬어지는 내 모습: 자신감, 태도, 말솜씨

도슨트 활동은 그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변화시킨다. 도슨트들이 경험하는 변화는 주로, 자신감 있는 태도, 말솜씨, 생기 있는 모습 등이다. 사람들에게 유물을 설명하는 활동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람을 대하는 대인관계에서 자신감을 얻는다. 또한 관람객의 수준에 맞게 설명을 해야 되므로, 쉬운 언어로 상대방을 이해시키는 능력이 길러진다.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는 능력만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활동자체에서 보람을 느끼다보니 가족들에게도 자신의 모습이 행복하게 비치기도 한다.

그 전에는 그냥 아줌마였죠. 그냥 마 같이 노는 아줌마. 하다보니까 사람들이 저 보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다보면 뭐든지 쉽게 얘기를 해준다고 해요. 귀에 잘 들어오게, 사실은 제가 박물관으로부터 있잖아요 그런 혜택을 너무 많이 받는 거죠.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정신적인 건데, 태도라든지, 말춤이라든지, 그리고 자신감. 내면에서 가장 큰 변화는 자신감이죠..(정윤미)

우리 신랑이 하는 얘기가, 다들 힘들잖아요. 자기도 일을 하면서 힘든데, 우리 집에서 제가 제일 편하고 좋대요. 제일 행복하게 보인대요. 왜 그러냐구 물으니까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하니까 제일 속편한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러더라고요.(장희선)

라. 생활의 활력이자 노후의 풍요로운 생활

도슨트 활동은 가정 이외의 또 다른 삶으로써 그들에게 보람과 성취감을 가져다준다. 특히 지적 추구와 열정은 높는데, 단조로운 일상에 놓여 있을 수 밖에 없었던 전업주부에게 도슨트 활동은 생활의 활력소가 된다.

박물관 활동은 생활의 활력소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남편만 바라보고 살잖아요. 전문적인 일은 아니지만 좋아하는 일을 하다보니까 남편에게 돌려지는 화살들이 좀 덜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 자체적으로 보람을 찾고 성취감을 느끼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인생은 자기가 사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장희선)

그냥 마 집에서 일만 하고, 로봇처럼 반복된 일만 하는 그런 것에서 정신적인 어떤 버팀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어릴 때부터 지적 만족 그것만이 어떤 사람의 대열에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못하고 밥만 하고 있으니까 그 불만이 쌓여서 나는 진짜 폭발하기 직전이었는데.. 그런데 인자 요런 거라도 하니까 조금이라도 해소가 되지.(양진옥)

나이가 많은 도슨트들은 봉사활동을 한다는 것, 지적인 것을 추구한다는 것 이외에 젊은 사람들과 함께 활동을 한다는 그 자체에서 보람을 느끼기도 한다. 노인으로서 대접받으며 안주하기 보다는 활동을 통해 현실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에 만족한다.

난 70 넘었으니, 옛날로 치면 상노인인데.. 요즘의 노인들은 아마 옛날하고는 생각이 다를 겁니다. 젊은 사람들과 함께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은 내 복이고. 그게 참 복이죠. 또 바꿔 이야기하면, 경로당 갈 필요 없고, 흰 대낮에 산에 다닐 필요 없고, 시간 있으면 공부해야 되고. 우선 경로당, 노인대학을 모르고 산다는 것도 복이 많은 거지. (황윤식)

마. 전문가로서의 도슨트에 대한 포부

도슨트들은 처음엔 관심과 흥미로 봉사 활동을 시작했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은 전문가로서의 포부를 가진다.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다듬고 자질을 길러서 이 분야에서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갖추고자 한다. 즉, 그들은 현재 상태보다 나은 모습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좀 더 유능한 박물관 전시실 해설 교사가 되고 싶은 거죠. 일본사람을 자유자재로 상대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정말 좋겠죠... 사실은 우리도 전문가로의 길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스스로 전문가가 되어야죠.(정윤미)

조금 더 욕심을 부린다면, 기왕에 박물관 쪽에 전시 안내를 한다면, 좀 소문이 날 정도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죠. 최고. 이 사람하면 뭐. 찾을 수 있도록. 전시 안내하면 강효금을 찾아라, 불러라든지. 이 정도 됐으면 안 좋겠나 싶어요.(강효금)

박물관 활동을 통해 도슨트들이 경험하는 삶의 변화와 의미는 ‘사회적인 소속감(John C Cavanaugh & Fredda Blanchard-Fields, 2006)과 자신감, 그리고 성장 욕구’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존재로서 우리는 고립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할 수 있을 때, 스스로 안정감을 느낀다. 이러한 사회적 소속감은 도슨트들의 연령, 성별에 관계없이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가정주부들에게 도슨트활동은 가정생활을 벗어나 규칙적이고 일정한 생활패턴으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는 것에서 만족감과 안정감을 준다. 나이 많은, 특히 남자 도슨트에게 이러한 활동은 현직에서 가졌던 소속감이 이어짐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자신보다 젊은 사람들과 어울려 함께 할 수 있는 활동 그 자체가 기쁨이다. 대체로 학습의욕과 탐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도슨트들에게 지속되는 해설활동과 학습은 지적인 면에서의 만족과 자신감을 준다. 단순 반복적인 일상생활에 묻혀 있다고 생각한 전업주부의 경우 이러한 만족이 보다 크게 나타난다. 그들은 활동을 통해 자신을 다듬어 가면서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자 하는 모습도 보인다.

V. 논의 및 결론

1. 논의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박물관 전시실에서 해설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도슨트(docent)의 교수자 및 학습자로서의 경험을 살펴보고, 그 경험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탐색하였다. 현재 들꽃박물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6명의 도슨트를 인터뷰하고 그 내용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해설활동은 도슨트들의 학습의 원동력이면서, 관람객과의 일체감을 통한 자기만족·보람의 시간이다. 둘째, 해설 활동을 통해 동기화되는 도슨트들의 학습과정은 자발적·자기주도적인 학습과정이고, 이를 통해 도슨트들은 끊임없는 지적추구의 기쁨과 만족을 경험한다. 셋째, 박물관 활동을 통해 도슨트들이 경험하는 삶의 변화와 의미는 사회적인 소속감과 자신감, 그리고 성장 욕구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에서 연구자는 도슨트들이 박물관에서 갖는 경험의 본질적 의미를 ‘끊임없는 학습을 통한 자기성장’으로 도출하였다.

연구자가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밝혔던 가정과 마찬가지로, 도슨트 활동에는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이 있었고, 학습활동은 연구자의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됨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도슨트들은 활동을 통해 자신의 내면이나 가족, 사회적인 관계에서 변화를 경험하였다. 즉, 그들은 활동을 통해 자신감과 소속감을 얻을 수 있었고 보다 나은 모습으로 성장하고 싶은 욕구도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한편, 도슨트 활동은 같은 장소에서 일어나는 활동이지만, 연령이나 성별 학력, 경제적 배경 등에 따라서 그 경험의 폭이 조금은 다를 수 있음도 알게 되었다. 갓 40세를 넘긴 전업주부인 장희선 씨의 경우, 도슨트 활동이 아이들 양육과 가정생활에 몰두하면서 잊고 지냈던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신감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 60대 중반의 양진옥씨는 고등학교 이후로 가졌던 지적 추구에 대한 열정을 박물관활동을 통해 조금씩이나마 해소하고 있음을 보였다. 퇴직한 전직교사인 70대 초반의 황윤식씨에게 박물관활동은 꾸준히 공부할 수 있는 생활이 지속되고 젊은이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풍요로운 노후생활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부분의 도슨트들이 대졸학력자들이면서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하는 것과는 달리, 고졸 학력자이면서 경제적으로 약간 어려움에 처해있는 강효금 씨의 경우 박물관 활동의 의미는 조금 달랐다. 공부하는 것을 즐겨했지만 대학교육을 받지 못했던 그녀에게 해설활동은 ‘교사’로서 대리만족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성인들의 학습이 시작되는 시점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과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Lindeman, 1926, 재인용). 그들은 전시실해설이라는 상황에 직면함으로써 학습의 동기와 필요성을 느낀다. 전시실 해설은 박물관 공부의 촉매제가 된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공부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시실 공부를 조금씩 해나감으로써 학습의 즐거움이 무엇 인지를 알게 된다. 박물관 도슨트에게 해설활동은 그 자체가 보람된 일이기도 하지만, 성인 학습자로서 도슨트들의 학습을 지속시키는 역할도 한다.

도슨트들은 다양한 학습 방법을 통해 획득한 지식을 전시실 해설에 활용한다. 그들의 지식은 상황과 관람객에 맞게 재구성하여 전달된다. 그리고 관람객의 눈높이에 맞춰 지식을 재구성하여 전달하는 것은 관람객의 입장에 서고자 하는 도슨트의 노력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관람객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전시실해설이 잘 이루어졌을 경우 도슨트에게 전시실해설은 보람되고 만족스러운 일이 된다.

인간이 심리적으로 성인이 되는 시기는 자신을 자기주도적으로 보는 시점(권두승·조아미, 2007:134)이다. 따라서 성인들의 학습은 자기주도적인 성격을 가진다. 즉, 성인의 학습은 권위적인 교수자에 의해 지시되고 계획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과 요구에 맞게 교과목과 과정이 계획된다. 도슨트들은 전시실 해설이라는 분명한 목표아래 학습활동을 전개한다. 그들이 어떤 학습형태와 방법을 취하든 그들의 학습은 전시실해설이라는 목적에 의해 동기화된다. 그들은 딱딱한 강의실에 앉아 주어진 시간에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집, 강의실, 전시실에서 책, TV, 컴퓨터, 신문, 잡지 등 여러 가지 방법과 형태로 학습을 진행시킨다. 그들의 학습은 자신들의 삶과 생활 속에서 이뤄진다.

도슨트 학습의 동기가 된 전시실해설은 그들에게 다시 학습의 자극제로 돌아온다. 자신의 해설을 반성하고, 역사 문화 전시물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탐구를 하는 과정에서 도슨트들은 학습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게 된다. 그리고 반복되는 해설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삶과 생활이 변화감을 느끼게 된다. 그 변화는 자신감, 태도, 의사소통 면에서 스스로 감지하기도 하고 가족이나 다른 타인을 통해 인식되기도 한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도슨트들은 스스로의 삶이 보다 성장하고 더욱 발전할 수 있음을 느낀다. 즉, 박물관해설과 그 해설을 위한 지속적인 학습과정은 단순한 지식습득과 전달의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슨트 각 개인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된다.

가르침과 배움을 통해 인간의 지속적인 성장을 돕는 것이 교육이라고 한다면(한송희, 2005), 박물관에서 도슨트의 활동은 성인교육 활동에 다름 아니다. 또한 도슨트들이 전시실해설 활동을 통해 자신의 지적 관심영역을 확대해나가고, 보다 나은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박물관은 성인교육의 중요한 장이 된다.

2. 제언

이상의 연구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첫째, 도슨트들이 모두 성인학습자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그들의 전체 삶에서 박물관활동이 갖는 의미를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번 연구의 도슨트 인터뷰 과정에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도슨트들이 자신들의 활동을 생애관점에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들이 박물관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나 동기가 자신들이 처한 삶의 상황에 따라 다르고,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박물관 활동에서 추구하는 목적과 의미 또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생애사 연구를 통해 현재 도슨트 활동이 갖는 보다 심층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로 나온 결과는 지역사회 성인교육기관으로서 박물관이 담당해야 할 역할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둘째, 박물관에서 일어나는 교육활동, 현상에 대해 미시적으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기존의 박물관교육 관련 연구들이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연구에 치우치다 보니 실제 박물관에서 일어나는 교육현상에는 소홀했다고 볼 수 있다. 전시실에서 관람객과 전시물 사이에 일어나는 의사소통, 도슨트와 관람객 간에 일어나는 상호작용, 교육담당자(educator)와 학습자들 간에 의사소통 관계를 좀 더 면밀히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실제 관람객들이 전시실에서 무엇을 배우고, 그것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박물관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에도 밑거름이 되며, 박물관의 다양한 교육현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신국(2003). 현대박물관 건축의 외부형태 이미지 특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 권두승, 조아미(2007).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성인학습 및 상담**. 서울: 교육과학사.
- 국성하(2003). 일제강점기 박물관의 교육적 의미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김민아(2005). 자연사박물관을 이용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인회(1997). 박물관교육의 정신사적 의미. 한국교육학회 교육철학연구회 연차학술대회 박물관과 교육. 1-23. 11월 29일. 서울: 연세대학교 박물관 시청각실
- 김주영(2003).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복합문화기능의 박물관 공간계획.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 류숙진(2005). 박물관교육 프로그램의 마케팅 전략화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 박선영(2005). 아동참여 관점에서 본 초등학생의 박물관 경험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백령(2005). **멀티미디어시대의 박물관교육**. 서울: 예경.
- 백지윤(1999). 박물관의 공간구조에 따라 나타나는 빛의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 신경림(2001). **현상학적 연구**. 서울: 현문사.
- 양현미(2001). 박물관연구와 박물관정책. 박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 이남인(2004). 현상학과 질적연구방법. 한국교육인류학회 2004년도 춘계학술대회 교육학과 현상학 1-24. 6월 5일. 서울: 서울대학교 문화관 중강당.
- 이남인(2005). **현상학과 해석학**.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보아(2003). **박물관학개론**. 서울: 김영사.
- 장현숙(1996). 디자인박물관의 입체전시 연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환경대학원.
- 조숙희(2006). 자연사박물관을 활용한 환경교육.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조용환(2006). **질적연구 방법과 사례**. 서울: 교육과학사.
- 최은미(2005). 박물관교육 참가자의 교육적 경험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한상훈(2003). 성인학습자의 교육참여동기와 자기주도학습의 관계. **평생교육학연구** 19(3). 한

국평생교육학회. 225-246.

한승희(2005). **포스트모던 시대의 평생교육학**. 서울: 집문당.

Alison L. Grindler·E. Sue McCoy(1985). *The Good Guide: A Source Book for Interpreters, Docents, and Tour Guides*. Arisona: Ironwood.

Corrine Glesne(2006). *Becoming Qualitative Researchers*(3rd ed.). Boston: Pearson Education, Inc.

Cyril O. Houle(1963). *The Inquiring Mind*. Madison: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Gary J. Confessore & Sharon J. Confessore(Ed.)(1992). *Guideposts to Self-Directed Learning: Expert Commentary on Essential Issues*. 정지웅, 김지자 역(2002). **자기주도 학습의 길잡이**. 서울: 교육과학사.

Helga Keller, Carole Kramer(2001), *The Docent HandBook*. The National Docent Symposium Council.

John C Cavanaugh & Fredda Blanchard-Fields(2006), *Adult Development And Aging*(5th ed.). Belmont: Thomson Wadsworth.

John W. Creswell(1998).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조홍식, 정선옥, 김진숙, 권지성 공역(2005). **질적연구방법론**. 서울: 학지사.

Joseph A. Maxwell(1996). *Qualitative Research Design*. 이명선, 김춘미, 고문희 역(2004). **질적연구설계**. 군자출판사.

Malcolm S. Knowles(2005). *The Adult Learner*(6th ed.). San Diego: Elsevier Inc.

Sinclair Goodlad(1998), *Museum Volunteers: Good Practice in the Management of Volunteers*. New York: Routledge.

Van Manen(1990). *Researching lived experience*. 신경림, 안규남 역(1994). **체험연구-해석학적 현상학의 인간과학 연구방법론**. 서울: 동녘.

- 논문 접수 2007년 8월 10일 / 수정본 접수 9월 17일 / 게재 승인 9월 19일
- 민수영 : 경희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음. 현재 부산대학교 교육학과 대학원에서 교육사회학 및 평생교육학 분야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며, 주요 관심분야는 평생교육으로서 박물관교육의 역할과 의의,

박물관교육 참여자들의 학습활동과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지역사회와 박물관 연계 등임.

Abstract

The Meaning of Docents' Experiences as Adult Learners in a Museum

Min, Su-Young(Pusan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experiences of museum docents who have participated in volunteering activities and to figure out the core of essence in their experiences. In doing this, the phenomenological method has been adopted in which the participants' experiences were focused and the data was gathered through interviewing them. For the data analysis, Colaizzi, Giorgi, and Van Kaam's phenomenological method was taken.

The findings regarding the meanings of docents' experiences are the following:

1. Strong sense of satisfaction from their steady pursuit for knowledge throughout the self-directed learning
2. The fruitful time with audiences in a sense of oneness
3. self-confidence, a sense of belonging and a desire for self-development

With the findings, the author suggests that the core of essence in docents' experiences is their own growth in both intellectual and emotional senses throughout their steady learning.

* Key words: adult learner, museum docent, experience, phenomenology